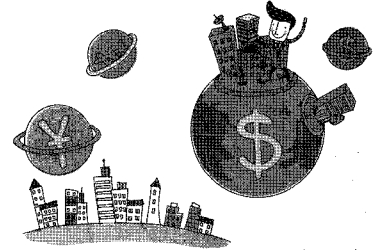


원화절상 점검회의 개최



지난 1/4분기 수출입 실적과 함께 최근 원화절상 및 아이슬란드 화산폭발 관련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회의를 지식경제부가 개최했다.

4월 22일 오전 지경부 김경식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관련 업종별 단체 및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했다.

1/4분기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에서는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확대 및 신흥시장 수요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36.2% 증가한 사상 최대인 1,014억불 기록했다.

반도체는 115.0% 증가한 94.7억불, LCD는 64.3% 증가한 67.2억불이며, 對中수출이 61.1%증가하며 수출비중도 확대되었다. 對中수출비중(%)은 ('09년) 23.8% → ('10년 1/4분기) 28.2%이다.

수입의 경우, 원자재가 상승 및 수출용 설비·부품 수입이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37.3% 증가한 981억불 기록했다. 원유는 58.0% 증가한 159.9억불, 납사는 111.5% 증가한 39.2억불, 반도체 제조장비는 606.8% 증가한 22.3억불 수입했다.

무역수지는 1월 6억불 적자에도 불구하고, 2·3월 흑자규모가 확대되며, 1/4분기는 33억불 흑자 시현했다. 과거 1/4분기 무역수지(억불)는 ('05) 62 ('06) 13 ('07) 24 ('08) △65 ('09) 30이다. 4월도 선박, IT 제품 등의 수출호조로 무역수지 흑자 지속전망이다.

최근 환율동향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증시자금 유입,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으로 4월 들어 지속하락하며 4.21일 1,100원대 진입하였다. ('09.1末)1,368 → ('10.1末)1,162 → (2末)1,160 → (3末)1,131 → (4.21)1,107이다.

엔-달러 환율은 지속 상승하여 엔화 약세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위안-달러 환율은 크게 변화 없다. 엔/달러는 ('09.1末)89.98 → ('10.1末)89.86 → (2末)89.15 → (3末)92.86 → (4.21)93.14이고, 위안/달러는 ('09.1末)6.840 → ('10.1末)6.828 → (2末)6.828 → (3末)6.826 → (4.21)6.82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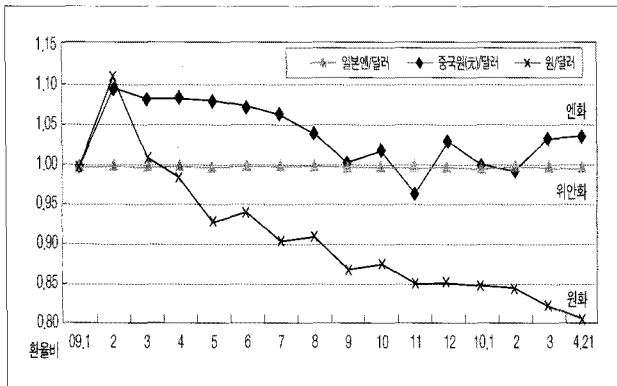
최근 수보 조사('10.3)에 따르면 컴퓨터·통신기기·석유화학 업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100~1,115원대이며, 일반기계·섬유류·가전 등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136~1,140원대이다.

대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090원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1,134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1,100원대 환율은 당초 수출입 전망치 예상범위내 수준으로, 올해 무역수지 200억불 흑자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무역전망은 수출 4,100억불, 수입 3,900억불, 수지 200억불(환율 1,100~1,150)이다.

다만, 타국 통화보다 빠른 속도의 통화절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모니터링과 함께 환변동보험·환위험교육 확대 및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대책을 통해

【 수출경쟁국 달러화 대비 환율 추이('09. 1월 末 대비 환율변동비) 】



수출기업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슬란드 화산폭발 현황 및 영향을 살펴보면, 4.14일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4.15일 이후 유럽 24개국의 항공편이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되었다.

그러나, 유럽 교통장관회의(4.19)이후 KLM 등 일부 유럽항공사의 운항재개 요구에 따라 상당수 공항 재개가 시작되었다. Euro Control에 따르면 4.22일 경에는 평시 물동량의 80%정도 회복 예측되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유럽발 항공 노선도 지난 주말 전후결항률이 매우 높았으나 점차 회복중이다.

항공운항 차질이 금주내 마무리시, 對EU 항공수출 비중(28.6%), 현지 재고물량 등을 활용 고려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최근 4개월('09.11~'10.2) 對EU 日평균 수출(백만불)은 전체(173.5) 항공(49.6)이다.

다만, 동 상황이 수주간 이어지면 주로 항공으로 수출되는 IT 제품 중심으로 수출피해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對EU 日평균 항공수출(백만불)은 무선통신기기(17.4), 반도체(7.7), LCD(6.5)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반도체·LCD 등은

【 인천발 유럽 화물행의 항공 결항 현황(인천공항공사) 】

일자	4.16(금)	4.17(토)	4.18(일)	4.19(월)	4.20(화)	4.21(수)
결항/스케줄	5/7	9/11	12/12	6/8	5/7	2/8

현지 재고물량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사태 장기화시 피해확산이 우려된다. 구주 공관 및 kotra 무역관 직원 비상대기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상황별 대응절차 강화하였다.

이번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에 따른 항공편 결항으로 독일 하노버산업박람회(4.19~23) 및 뮌헨 국제건축건설광산기계전(4.19~23)에 참가하는 업체 대부분이 박람회 개막에 맞추어 현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비상 대응조치로 코트라 구주 본부 등을 통하여 전담통역원 및 현지 도우미 고용 등을 통해 업체를 대신하여 전시상담을 진행시키는 등 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지시하였다.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에 따른 공항폐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해외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업체들을 위해 “천재지변에 의한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지경부, KOTRA 등 유관기관으로 참가업체 지원 대책반을 구성,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전시상담을 대행, 대체항공편 물색 및 호텔예약 등 현지체재를 지원한다.

중기적으로는 KOTRA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전시회 지원업무 규정”을 개정, 금번 화산폭발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참가업체에 대해 기 투입된 국고지원금의 환수를 자제하고, 전시회 불참에 따라 전시장 임차료가 환불되는 경우, 업체 분담액은 해당업체에 전액 환불토록 하는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식경제부 한진현 무역정책관은 앞으로 유럽지역 수출업체들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 전시회 참가만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